

2017년 충청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운영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발 간 사

농촌 고령화와 젊은 층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유지에 필수적인 입대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일부 의용소방대의 경우 대원 퇴임 시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말 기준 충남도내 의용소방대는 369개대 정원 10,367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은 8,886명으로 1,481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보조 활동과 별집제거 등을 비롯한 생활안전구조 활동을 각 지역에서 성실히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 부족으로 인한 활동력 저하, 생계와 지역봉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고충, 화재진압 보조를 위주로 하던 과거의 활동에 안주하려는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지역별 입대자원 불균형 극복 및 정예대원 양성 방안을 살펴보고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연구모임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주신 김문규·장기승·조이환·오인철 의원님, 김연응 천안시 의원님, 충남소방본부 화재대책과 김근제 과장님과 회원으로 참여해 주신 의용소방대장님들,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나기영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내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위상이 향상되고 의용소방대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모되어 주민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사랑 받는 조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17. 12. 5.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목 차

I. 연구모임 계획	1
1. 추진방향	2
2. 연구개요	2
3. 세부 연구계획	3
4. 연구 추진일정	4
5. 기대효과	4
II. 연구모임 주요활동 일정 및 내용	5
1. 연구모임 주요활동 일정	5
2. 연구모임 활동 내용	6
가. 연구모임 창립총회	6
나. 연구모임 2차 모임	14
다. 연구모임 회원변동	23
라. 연구모임 현장견학	24
마. 연구모임 3차 모임	33
III. 연구모임 제언	41
IV. 참고자료	75
1. 신문보도 사항	75
2.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96

I. 연구모임 계획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세부계획

2017. 2.

 충청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세부계획

- ◆ 의용소방대의 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 지역별 입대자원 불균형 극복 및 정예대원 양성방안 연구

1 추진방향

- 실현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과제 수행
- 연구과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및 현장 견학 등 실시
- 회원 상호간 연구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및 친목도모
-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정보 공유

2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의용소방대 및 대원,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조례, 타 사회봉사단체 등

◆ 충청남도의용소방대 현황 (2017. 1. 1. 기준)

- 조직/인력 : 367개대 / 8,995명으로 구성(전년대비 505명 감소)
- 설치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연구기간 : 2017년 2월~11월
- 연구내용
 - 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현장견학 등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 연구비 : 5,000천원

3 세부 연구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개요 : 현직 의용소방대장 등인 회원들과 소방공무원 등에게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
- 내용 : 연구모임 개최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모임
- 연구비 : 3,000천원

2. 현장 견학 및 토론회 개최

- 개요 : 현장 견학 1회, 토론회 개최 1회
- 내용 : 도내 및 타 시·도 의용소방대를 방문하여 대원 임명·운영 및 현장 활동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실태 파악, 토론회 등 개최
- 연구비 : 1,000천원

3. 보고서 발간·배포

- 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 성과 공유
- 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연구비 : 1,000천원

4 연구 추진일정

- 연구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2017년 1월 중
- 1차 발족모임 개최----- 2017년 2월 중
- 조사·연구 실시----- 2017년 2~11월 중
- 2차 모임 개최----- 2017년 6월 중
- 현장 방문 실시----- 2017년 7~8월 중
- 3차 모임 개최----- 2017년 9월 중
- 4차 모임 개최----- 2017년 11월 중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2017년 12월 중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 평상시는 물론 재난 발생 시 확고한 역할 인지.수행으로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위상 향상
-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통한 적정 대원
유지 및 선발로 조직 안정성 유지
-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요인 제공 및 대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
- 의용소방대 법률 및 조례 제·개정 방향 설정 근거 마련
- 도의회 연구모임 활성화로 연구하는 도의회 분위기 조성

Ⅱ. 연구모임 주요활동 일정 및 내용

1. 연구모임 주요 활동 일정

일 자	활동내용	장 소
2017. 2.22.	창립총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실
2017. 5.25.	2차 모임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2017. 9.12.	현장견학	천안펜타포트, 천안서북소방서
2017.11.15.	3차 모임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2. 연구모임 활동 내용

가.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창립총회

□ 개요

- 일 시 : 2017. 2. 22.(수) 16:30 ~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연구모임 대표 홍성현 의원 등 9명

□ 회의결과

- 모임구성 : 20명(도의원 5, 천안시의원 1, 소방공무원 1, 의용소방대원 12, 자율방재대원 1)
 - 간사 선정(나기영 회원)
- 모임안건
 - 다음모임 일정 : 4월 중
 - 연구주제
 - ① 의용소방대 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 ② 타 봉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③ 지역별 입대자원 불균형 해소 문제
 - ④ 정예대원 양성방안
 - ⑤ 사기진작 및 활성화 방안 등
 - 현장견학 대상 추천 : 다음 모임 시
 -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충남소방본부 의용소방팀장 협조 요청 및 참여 요구 등
 - 회원 참석수당은 모임 활동 종료 후 잔여예산 범위 내 지급

- 붙임 1. 의원연구모임 회원 현황 1부
2. 창립총회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의원연구모임 회원 현황》

회원 현황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참석여부
1	대표	홍성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참석
2	회원	김문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3	회원	조이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4	회원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5	회원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	참석
6	회원	김연응	천안시 의원	
7	회원	김근제	충청남도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참석
8	회원	강창환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참석
9	회원	이경호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처장	
10	회원	이헌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참석
11	회원	김형미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여성의용소방대 여성회장	참석
12	회원	이행수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여성의용소방대 대장	
13	회원	장윤곤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14	회원	김기철	천안서북소방서 서북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15	회원	김윤주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여성의용소방대 여성회장	
16	회원	노성철	서천소방서 서천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17	회원	정해성	서천소방서 서천여성의용소방대 여성회장	
18	회원	신현대	천안동남소방서 목천읍남성의용소방대 대원	참석
19	회원	김진찬	충청남도자율방재단 사무국장	참석
20	회원	나기영	천안동남소방서 동남남성의용소방대 신부지역대 부장	참석

《붙임 2. 창립총회 회의자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2017. 2. 22.(수) 16:30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

2017년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건

안건번호	제2017-1호
심 의 년 월 일	2017. 2. 22. (연구모임 창립총회)

심
의
사
항



충청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 목 차 ...

I . 목 적	10
II . 추진방향	10
III . 연구개요	11
IV . 세부 연구계획	11
1. 연구활동을 위한 모임	11
2. 현장 견학	11
3. 정책토론회 개최	11
4.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11
V . 향후 추진일정(안)	12
VI . 심의 안건	12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2017년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건

I 목 적

- 의용소방대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 분석 및 다른 봉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의용소방대원의 역할 및 대응능력 중요성 인식, 변화의 주체로서 조직 혁신 및 활성화 적극 참여 유도
- 의용소방대 위상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연구정보 교류 및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II 추진방향

- 실현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과제 수행
- 연구과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및 현장 견학 등 실시
- 회원 상호간 연구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및 친목도모
-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보고서 발간·정보공유

(추진근거) 충청남도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기간) '17년 2월 ~ 11월

(활동내용) 정책연구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중심 연구모임

III 연구개요

- 연구대상 : 의용소방대 및 대원,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조례, 타 사회봉사단체 등
- 연구기간 : 2017년 2월 ~ 11월
- 연구내용
 -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 및 타 사회봉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문가 및 의용소방대원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시행
 -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IV 세부 연구계획

① 연구활동을 위한 모임

- 개요 : 연구과제 부여 후 다음 모임 시 발표 및 공유
- 관련분야 : 의용소방대 역할, 정신, 교육, 훈련, 예산지원 등
- 모임시기 : 2~3개월 단위로 모임 개최

② 현장 견학

- 개요 : 관련 기관·단체를 방문 자료조사 및 실태 파악
- 대상 : 도내 의용소방대 및 타 시·도 의용소방대 등
- 내용 : 대원 임명·운영 및 현장활동 등에 대한 자료조사 실태파악 등

③ 정책토론회 개최

- 개요 : 전문가 및 의용소방대원이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 시기 : '17. 9월~10월(연구기간 내 1회 시행)
- 내용 :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등

④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 개요 :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연구 성과 공유
- 내용 : 연구과제 종합결과보고서 발간(연 1회)
 - 의용소방대 법률 및 조례 재·개정 방향 설정 근거 및 의용소방대 역할 인지 및 대응능력 향상 교육·훈련자료 활용

V 향후 추진일정(안)

- '17. 05. ~ 06. : 2차 모임 개최
- '17. 07. ~ 08. : 현장 견학
- '17. 08. ~ 09. : 3차 모임 개최
- '17. 09. ~ 10. : 정책토론회 개최
- '17. 10. ~ 11. : 4차 모임 개최
- '17. 12. : 연구보고서 발간

VI 심의 안건

- 2017년 연구모임 추진일정에 관한 건
 - 향후 추진일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
- 다음 정기모임 일정 및 연구주제 선정에 관한 건

<창립총회 사진>



나.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2차 모임

□ 개요

- 일 시 : 2017. 5. 25.(목) 15:00 ~
- 장 소 :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 참석자 : 연구모임 대표 홍성현 의원 등 회원 13명

□ 회의결과

○ 의용소방대 발전방향 설명

- 김근제 회원(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 자율토론

- 의용소방대 기본현황 및 활동실적 분석
-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 및 개선방안
- 호스릴소화전 설치 관련 설명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 현황 및 성과

⇒ 마을 자치소방 구현을 위한 주체로서 활동 필요 공감,
역할 및 정체성 재정립으로 변화 도모 필요

- 현장견학 대상 추천 : 다음 모임 시
-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충남소방본부 의용소방팀장 협조 요청 및 참여 요구 등

붙임 의용소방대 발전방향 설명 자료 1부. 끝.

《붙임: 의용소방대 발전방향 설명 자료》



1. 의용소방대 기본현황

① 설치목적: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관서의 업무 보조

② 대(隊)현황

구분	총괄				전담의용소방대		
	계	남성	여성	혼성	계	남성	혼성
대수(대)	367	224	142	1	104	103	1
현원(명)	8,995	5,911	3,054	30	2,686	2,656	30

③ 활동실적

구분	계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원	훈련·예방·홍보	순찰·경계 근무	대민봉사 등
회수(회)	31,101	2,295	6,605	19,125	3,076
인원(명)	241,774	23,512	115,410	66,867	35,985
활동비율(%)	100	7.4	21.2	61.5	9.9

2. 의용소방대의 어제와 오늘



경제변화



산업변화



생활변화



소방변화





우리나라는
급속히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소방관서

도시중심의 소방행정

농어촌 마을
소방수혜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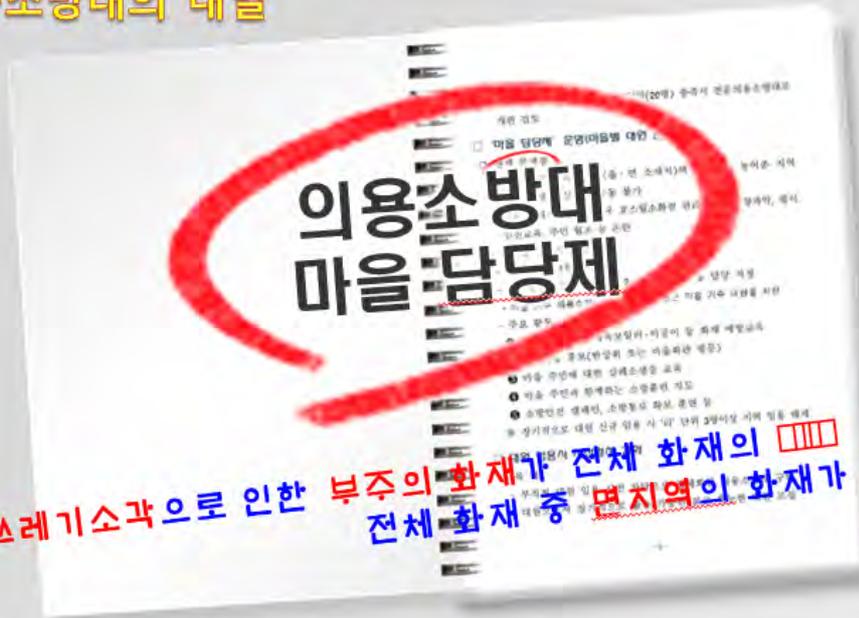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외 보조 역할

업무비중 저하
정체성 혼란



3. 의용소방대의 내일



들불,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의 1/3 차지
 전체 화재 중 면지역의 화재가 1/3 차지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367개대 8,995명

▶ 대원 3~4명씩 2~3개 마을 담당(4,492리)



▶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할 일은?



마을회관 방문



각 가정 전기, 가스, 화재취약요인 점검



소화기 교육



CPR 교육



화목보일러 점검



담당마을 명패



포스터 부착



교육매뉴얼

▶ 마을담당제 활동 성과

(기간 : 2017. 1. 1 ~ 5. 15)

구 분	활동실적
활동회수	9,333회
활동인원	32,986명
활동시간	139,615시간

들불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감소





<2차 모임 사진>



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회원변동

연구모임명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자	홍성현 의원	
변동회원	당초 (20명)	홍성현, 김문규, 조이환, 장기승, 오인철, 김연웅, 김근제, 강창환 , 이경호, 이 현, 김형미, 이행수, 장윤곤, 김기철, 김윤주, 노성철 , 정해성 , 신현대, 나기영, 김진찬
	변경 (19명)	홍성현, 김문규, 조이환, 장기승, 오인철, 김연웅, 김근제, 이경호, 황정옥 , 이 현, 김형미, 이행수, 최명순 , 장윤곤, 김기철, 김윤주, 신현대, 나기영, 김진찬
변동일자	2017. 9. 11.	
변동사유	직위 변동 등으로 인한 일신상 사유 탈퇴 및 연구모임 회원 희망자 신규 가입	
기타사항	-탈퇴 3명: (강창환, 노성철, 정해성) -신규 2명: 황정옥(충남의소대연합회 여성회장) 최명순(천안동남여성의소대장)	

2017년 9월 11일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 홍성현

라.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현장견학

□ 개요

- 일 시 : 2017. 9. 12.(화) 14:30 ~
- 장 소 : 천안펜타포트, 천안서북소방서
- 참석자 : 연구모임 대표 홍성현 의원 등 회원 15명

□ 견학결과

《진행일정》



① 천안 펜타포트

(기본현황)

- *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6(불당동) 소재, 도내 유일 초고층 건물
- * 건물구조 : RC 및 SRC조, 층수 : 지하 5층, 지상 66층
- * 방화관리자 : 총괄재난안전관리자 1, 특급 방화관리자 2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 활동설비	소화 용수설비
소화기, 옥내·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탐·자속·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공기 호흡기, 비상조명등	연결 송수관, 비상콘센트, 방수구, 전실제연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저수조

※ 32층 기계실 등을 피난층으로 사용 중

(견학 활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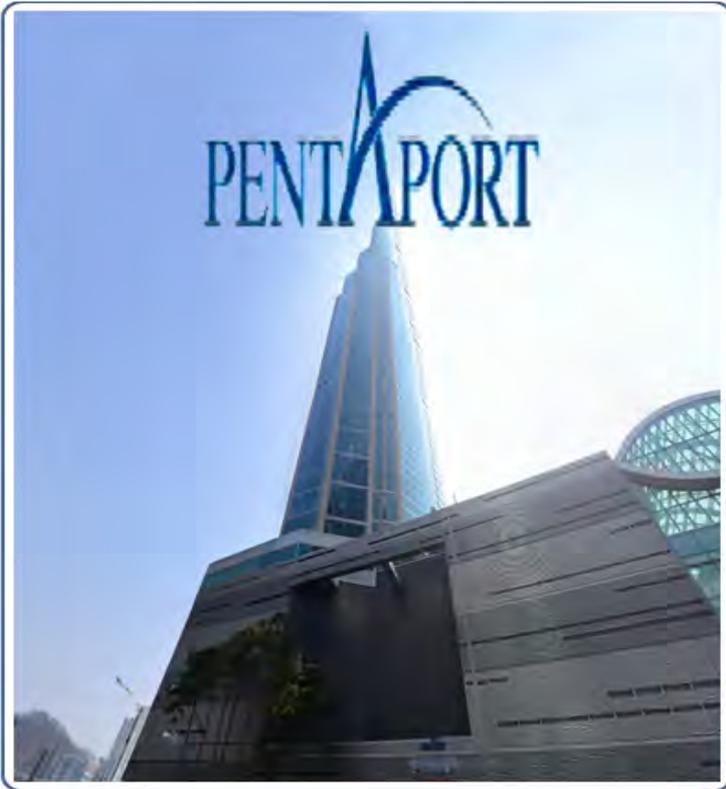
- 방재실 및 소방시설, 헬리포트 확인
- 현황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철저 주문
 - 입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요령 자체 교육 주문
 - 자위소방대의 실전 같은 소방훈련 주문

② 천안서북소방서

- 회원 소개 및 인사
 - 천안서북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및 수범사례 청취(천안서북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기철)
 - 자유토론
 - 의용소방대 정원 부족 현상 지속 중, 신규대원 확보 노력 필요
 -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지원 필요(피복 개선, 수당 지급 방법 등)
 - 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 교육 확대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 지속 추진
- ⇒ 고층건물 화재 시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공감,
자발적인 노력과 지원 및 충분한 교육과 훈련 선행 필요
- 천안동남·서북소방서 의용소방팀장(팀원) 회의 참석 의견수렴
 -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충남소방본부 의용소방팀장 계속 참여 요구 등

붙임: 천안펜타포트 3블럭 단지 현황 1부. 끝.

《붙임: 천안펜타포트 3블럭 단지 현황》



펜타포트 3블럭 단지 현황 안내

ASTI (주)아스타아이비에스



펜타포트 3블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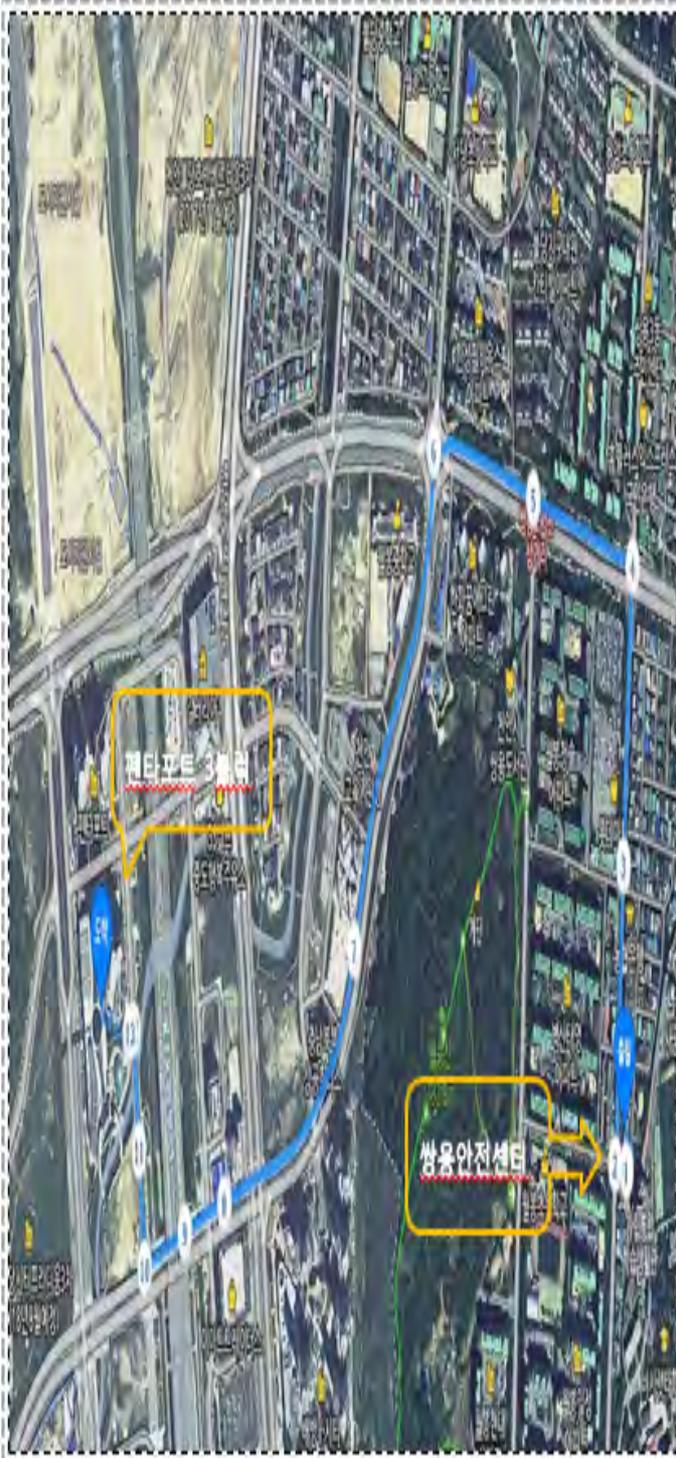


건물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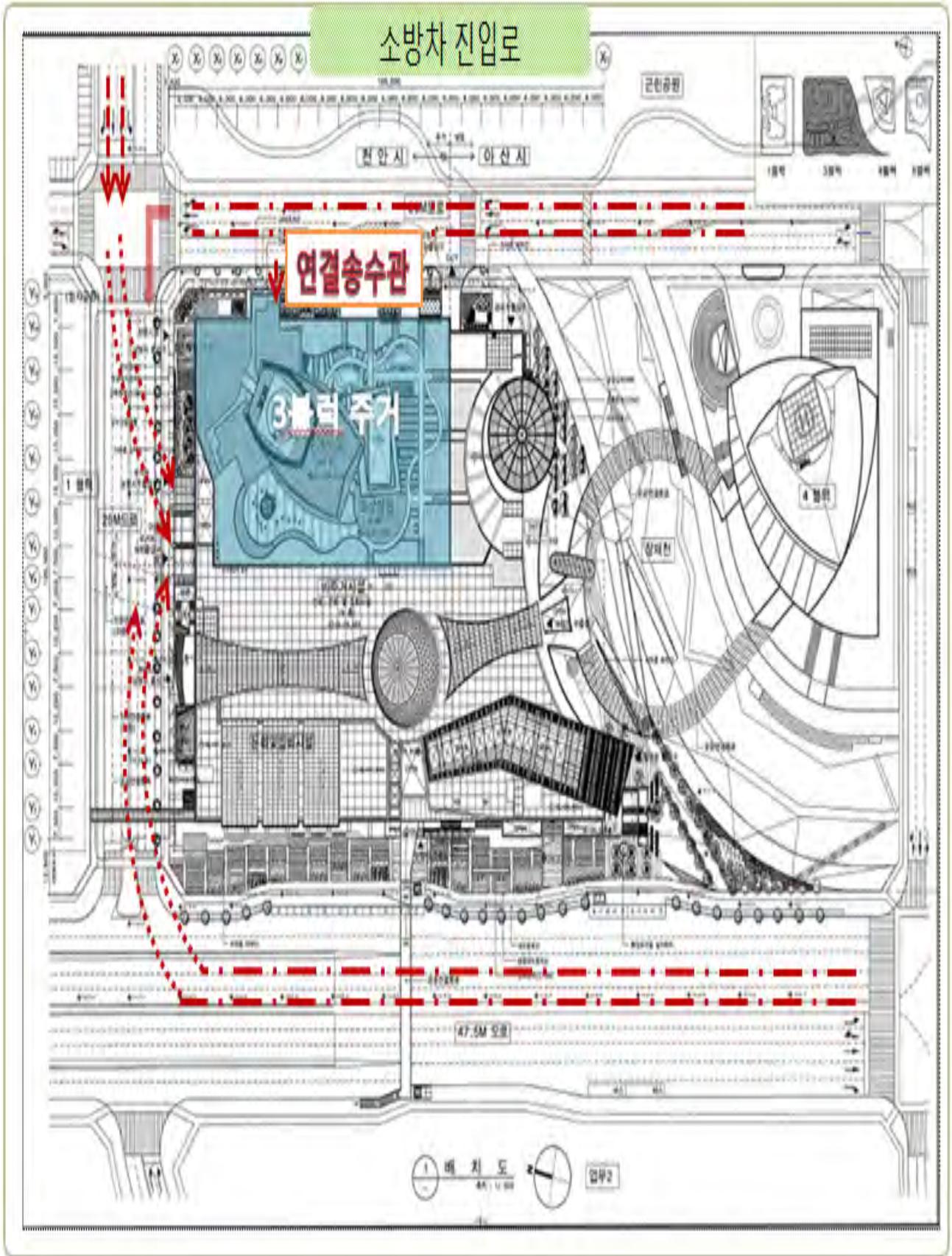
건축물의 기본현황

건물명	펜타포트 3블럭 주상복합건물	전화	주간 야간	041) 546-8868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6. (불당동)			
건물구조	RC 및 SRC조	층수	지하5층, 지상 66층	
연면적	96,189.842㎡	건축면적	5,214.651㎡	
화재보험	가입년월일	회사명	가입대상물	금액
가입현황	2016년 1월 19일	메리츠 화재	주거/상업	35,097,600원/46,552,900원
관계인	소유자	펜타포트 3블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자	쥬아스타IBS		
	기타	-		
자격 선임자	종류	성명	연령	자격증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양희정	39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주거)	염종규	39	특급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상가)	이득열	39	특급 방화관리자
			신고년월일	
				2016년 6월
				2016년 4월
				2016년 1월

소방차 출동로



- 인접안전센터
 - 쌍용119 안전센터 (360-0263)
최단거리 2.33Km,소요시간 5분 이내
 - 서부119 안전센터 (360-0388)
최가거리 9Km,소요시간 5분 이내
 - 두정119 안전센터 (360-0402)
총 거리 2.33Km,소요시간 5분 이내
- 관내 소방서
 - 서북소방서 (360-0263)
최단거리 약 9km,소요시간 10분 이내
- 응원협정소방서
 - 동남소방서
 - 아산소방서



세대 피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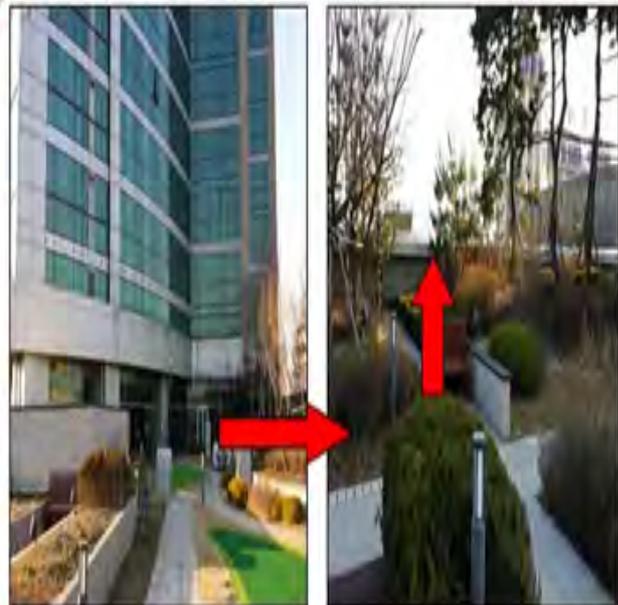
1.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옆세대로 피난대피



2.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8층공원으로 대피



3. 8층 공원에서 상가 옥상으로 피난대피한다.



<현장견학 사진>



<현장견학 사진>



<현장견학 사진>



마.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3차 모임

□ 개요

- 일 시 : 2017. 11. 15.(수) 16:00 ~
- 장 소 :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
- 참석자 : 연구모임 대표 홍성현 의원 등 회원 12명

□ 회의결과

- 의용소방대 제안·건의사항 추진현황 설명
→ 김근제 회원(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 자유토론
 - 의용소방대 전문화 및 활동 활성화 필요 공감
 - 의용소방대 화합 저해 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필요
 - 소방공무원 활동사항에 대한 이해 및 공감 강화

⇒ 재난관리 활동 시 손실보상 방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의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 시 피해발생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담보 필요

- 이후 그동안 활동사항을 토대로 연구보고서 발간 추진
- 회원 참석수당은 잔여예산 범위 내 지급

붙임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건의내용 처리결과 1부. 끝

《붙임: 제안건의내용 처리결과》

2017. 11. 15.(수)

-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
제안·건의내용 처리 결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① (5.25. 김형미 동남여성회장)

“연령이 적은 소방공무원과 연령이 많은 의용소방대원과의 소통과정에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많다.”

→ 각 소방서로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시 의용소방대와 소통 방안 교육 하라는 문서 송부

→ 천안동남소방서를 비롯한 16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직장 교육 및 각 센터 방문 복무점검 시 소속 직원에게 의용소방대와 소통에 대한 교육 및 친절교육 병행 실시 완료

② (5.25. 장윤곤 동남남성 부대장)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 부족으로 대 간부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 하다.”

→ 당진, 계룡, 부여, 예산소방서는

간부 리더십 교육 실시완료

→ 이외 소방서에서는 연합회의 및 하반기 복무

점검 시 리더십 교육 병행 실시 예정

③ (5.25. 김기철 서북연합회장)

**“퇴임 대장이 고문으로 위촉 된 후 대 화합 및 분열
조장 초래 한다.”**

- 동남, 공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예산소방서 고문 없음
- 서북(10.30. 교육완료), 보령(11. 9. 교육완료),
아산(11. 9. 교육완료),
- 청양, 홍성, 태안은 대장 이취임시 교육 완료

④ (5.25. 김윤주 서북여성회장)

**“마을담당제 운영관련, 마을회관에 홍보포스터 119글씨
크게 제작 부착 해달라는 주민요청 건”**

- 동남, 공주,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은 119글씨 크게 부착 완료
- 서북, 보령, 아산, 계룡, 청양, 홍성소방서는 제작 진행 중

⑤ (5.25. 김윤주 서북여성회장 / 9.12. 김기철 서북연합회장)

“면 지역의 여성의용소방대는 대원 인원이 적은데 비해 간부가 너무 많으니 조직조정 및 업무 분장 축소 조정 필요 하다.”

→ 소방본부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의 규모에 적합토록 소방서장이 업무분장 조정(축소)운영토록 문서를 통보

→ 당진(향후 추진 예정)

금산(현원 부족 여성대 반 통합 운영)

이외 소방서(현 체제 운영)

⑥ (9.12. 황정옥 도 연합회 여성회장)

“대원 교육·훈련 시 사기진작을 위한 소집수당 지급 필요 하다.”

→ 현 규정상 지급 어려움

→ 교육 훈련 이후 마을담당제 등 실시 후 지급 조치

⑦ (9.12. 김윤주 서북여성회장)

“생활안전강사 교육 수료 후 활동이 저조, 활성화 필요 하다.”

-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로 마을담당제 활동 및 지역행사에서 적극 활동토록 문서 통보
- 2017년 생활안전강사가 주민 교육한 인원 에 대하여 소방관서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추진 중

⑧ (9.12. 이행수 전 동남여성대장)

“여성대원에게 경광봉 지급이 필요하다.”

- 동남, 서북, 공주,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예산소방서는 지급
- 보령, 논산, 계룡, 청양, 홍성, 태안소방서는 주문 진행 중

⑨ (9.12. 이헌 동남연합회장)

“연말 성과중심 보상 금액을 대원 개인에게 지급해 주고 있음. 대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토록 대에 지급해 달라는 건”

- 대 명의 계좌 개설 가능여부 및 입금에 따른 회계처리 확인 방법 등 종합적 검토 중

<3차 모임 사진>



Ⅲ. 연구모임 제언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을 통한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 모임

목 차

1. 서 론	44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4
1.2 연구의 목적	45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5
1.4 선행연구 분석	45
2. 의용소방대 역할 및 농어촌 현황 분석	46
2.1 의용소방대의 역할	46
2.2 한국 의용소방대	47
2.3 외국의 의용소방대	48
2.4 의용소방대의 특성	49
2.5 충남 농어촌 마을 현황	52
2.6 농어촌 소방안전 정책 현황	58
3.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시범사례 분석	59
3.1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개념	59
3.2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시범사례 분석	60
4.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운영 및 결과 분석	64
4.1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운영방법	64
4.2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결과 분석 및 고찰	65
5. 결 론	70
참고문헌	72

표 목 차

Table 1. 일본의 관설 소방기관과 소방단의 보유 주요 장비 현황	51
Table 2. 한국과 외국의 의용소방대 교육 비교	52
Table 3. 인구의 변화	53
Table 4. 평균 연령의 변화	53
Table 5. 노령화 비율	53
Table 6. 의료기관의 수	54
Table 7. 평생교육시설의 수	54
Table 8. 문화예술시설의 수	55
Table 9. 천안과 청양의 주민만족도	55
Table 10. 유성구의 거주환경 만족 가구의 비율	55
Table 11. 청양, 천안, 유성구의 면적 대비 소방력 지수	56
Table 12. 화재 5분출동율	57
Table 13. 의용소방대 거주 현황	60
Table 14.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내역	62
Table 15.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내역	63
Table 16. 홍성소방서 화재 발생 현황	63
Table 17.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세부개요	63
Table 18.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세부실적	64
Table 19. 의용소방대 연도별 세부 실적	66
Table 20. 충남과 전북의 현황 비교	67
Table 21. 전북 의용소방대와의 실적 비교	67
Table 22. 타시도 의용소방대와 실적 비교	68
Table 23. 주택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현황	69
Table 24. 들불 및 쓰레기 화재 현황	69

그림 목차

Figure 1. 농어촌 거주지역의 악순환	56
Figure 2. 5분 출동 가능 지역	57
Figure 3. 의용소방대 마을담당대원 명패	60
Figure 4.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교육 자료	61
Figure 5.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교육 사진	61
Figure 6. 마을담당제 활동 사진	62
Figure 7.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관련 교육 사진	65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수립 이후 1980년대까지의 소방은 단순 화재에 대한 예방·경계·진압이라는 업무에 국한되었으나 1990년대를 전후로 구조·구급을 소방에서 담당한 이후 소방업무의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고, 현재는 고층건물의 증가, 산업시설의 대형화, 교통의 발달, 화학사고 및 테러위협 등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업무를 넘어 생활안전 업무 및 재난대응의 중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늘어난 업무 영역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적절한 증원 없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체계는 2교대에서 3교대 체계로 변환되었고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공백 상태의 119지역대 증가에 따라 신속한 소방서비스 지원 및 예방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1960년대 중반 산업화 이후 대도시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화, 노인의 인구가 높아지는 노령화, 과거 100호 이상이었던 마을 가구 수가 20호 미만의 가구 수로 변해 가고 있는 과소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귀농정책과 출산정책 및 도농교류 활동 추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복지·문화시설 불균형에 따른 농어촌 삶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농어촌 주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악순환 형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인 농어촌 읍·면지역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난 발생 시 대응방법은 관 주도의 인력과 장비동원 등으로 복구 및 수습을 실시하였으나, 부족한 소방력과 주민자율성의 결여 등으로 관 주도방식의 방재 체제는 효율성 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지역의 지리정보와 상황에 익숙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평소 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시 초동조치 등, 방재활동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율방재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중심의 방재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등 지역차원의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주민자율방재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면서 화재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화재예방과 민·관이 함께 재난 초기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소방안전 체계가 필요하고 과거 소방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재난현장의 해결사로 자치소방의 한 몫을 담당했던 의용소방대원의 중추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소방안전의 실태와 그동안 추진된 여러가지 농어촌 소방안전 정책을 분석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안전의 리더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실시해 농어촌 주민 스스로가 재난에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예방순찰과 전기·가스 점검 활동으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면서 농어촌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효과와 제도의 운영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농어촌의 현황을 파악한 후 농어촌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제시하고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농어촌 지역 소방안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의용소방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의 정의와 변천 및 그 특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의용소방대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과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소방안전 인프라 차이를 비교하고 각종 소방안전 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농어촌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에서 중점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농어촌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라는 제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법을 설계하고 분야별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범적으로 충남 소방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넷째,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자료를 분석하였다. 충남 이외의 시도 의용소방대 운영 통계와 시기별 비교를 통해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1.4 선행연구 분석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통해 농어촌 소방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므로 의용소방대의 정의, 운영 실태와 농어촌지역 재난의 효율적 대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Jeong(2016)⁽¹⁾은 사전적 의미로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라고 하였다. Woo(2015)⁽²⁾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단위별 일선의 소방조직으로서,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의 방지와 그 수습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에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진 자들로 조직된 무보수의 자율적 민간봉사단체라고 하였으며, Park(2011)⁽³⁾은 국가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설립취지와 활동에 있어 관련 단체로 정의할 수도 없으며,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단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여지는 특수성을 지닌 조직으로서, 관계법령의 근거로 설치 운영되며 소방기관의 지시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보조업무를 비상근적으로 수행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Woo(2015)⁽²⁾그 시대의 사회봉사자라는 근간은 변함이 없으나 시대에 따라서 봉사내용은 조금씩 변해왔다. 즉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의 다양성, 조직 관리의 다원화 현상에 따라서 소방 활동적 측면과 재난안전관리 측면으로 이원화되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대별되어 연구되어 왔다고 했으며, Lee(2006)⁽⁴⁾는 조직 기본이념과 활동내용의 불명확성, 조직운영·관리상의 비효율성,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재난의 효율적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oo(2015)⁽⁵⁾은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재난 발생 현황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며 농촌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해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Park(2016)⁽⁶⁾은 농촌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 조직의 협력방안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재난관리 활동의 주요 문제점은 주민 참여 부족에 있으므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재난관리 민·관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의용소방대는 자발적 혹은 자율적 봉사활동 단체라고 언급되어있고, 봉사자라는 근간은 변함이 없으나 봉사내용의 점차적인 변화에 대한 기술이 언급되었으며, 농촌 특성에 맞는 참여형 재난관리 교육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농어촌 지역 재난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농어촌 현황 분석

2.1 의용소방대의 역할

2.1.1 소방력 보조자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의용소방대의 운용형태는 평소에 적정인원의 비상근 소방력으로 운용되다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 원을 투입하여 정규 소방력을 보조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및 재래시장·화재취약지역 경계순찰, 화재진압 지원, 재해복구, 대민봉사 등 소방 및 방재업무를 지원·보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은 각종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민관파트너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방의 흥

보활동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1.2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지만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에 이르렀으며,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자원봉사단체의 활용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대형재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전국단위의 민간조직과 의용소방대 조직은 긴급구조 활동, 구호활동, 응급의료 활동, 통신활동, 의연금 모집 및 분배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민간자원들은 재난 활동 시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상의 문제점과 조직 관리의 문제점 등을 노출하기는 했지만 중앙화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의 민간자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2.2 한국 의용소방대

2.2.1 의용소방대의 변천

불을 끄는 일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그 골격을 갖추게 되었고,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인 세종 5년(1423년) 6월에 병조에서는 궁중 화재에 대하여 금화조건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그 중 민간인을 화재진압에 참여토록 한 기록이 있는데, ‘화세가 심하여 부득이 외인이 들어와 불을 꺼야 할 경우에는 내신이 아패를 가지고 외인을 인솔하여 불을 끄며’ 라고 나타나 있다. 이는 화재발생시 관 주도의 소극적인 지역주민 참여체제를 최초의 기록으로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의용소방대의 최초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과거의 관 주도식 소방조직 활동이 발전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소방 활동을 하게 된 시기는 2004년 10월 공개된 「자치소방단 발기문」 기에 의하여 1907년경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일제시대의 소방대 조직설을 100년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선조가 지역방재를 위하여 외세에 의지하지 않은 활동을 보였으며, 자주적이고 애향정신이 함양된 상호부조의 단합된 지역주민의 정신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치소방단 발기문」은 한국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현 서울 종로소방서)가 문을 연 1925년보다 18년이나 먼저 민간 차원의 소방단이 활동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며, 동대문·서대문·종로 등에 20명씩 총 100명을 배치하고 소방기계와 사닥다리, 쇠갈고리 등을 준비하자는 제안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주민위주의 자치소방단은 일제시대의 소방단과 수방단이 통합·편성되어 경찰단이 되고, 광복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해체되어 소방대가 조직되었다가 1952년에 방공단에 흡수되었다. 1954년 의용소방대 조직으로 재구성되었고, 이후 1984년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칙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 들어서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2014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조직구성 및 예산지원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2017년 1월 현재 전국의용소방대는 3,853대에 대원

94,932명의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조선시대부터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고 조직의 운영과 체계는 발전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재난 양상이 대형화, 전문화, 장기화 되는 추세 속에서 관설 소방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한 기대나 역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2.2.2 자격과 임무

의용소방대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건강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신망이 두터운 의용 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을 그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기본임무는 「소방업무를 보조 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의 임무에 대하여는 소방의 일반 업무 및 지시에 따라서 비상주 근무 및 소집명령에 따른 출동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보조임무도 수행하고,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임무수행을 하며, 민방위기본법의 규정 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무가 각 법령 및 지시, 관습으로 규정되어 있다.

2.2.3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의 정기교육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며,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교육으로 실시한다. 또한 중앙부서에서의 의용소방대장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재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육성하기도 한다.

2.3 외국의 의용소방대

2.3.1 미국

미국 국가방화협회(NFPA)의 소방용어사전에 “의용소방대원(volunteer Fireman)이란, 정규로 임명되어 무급으로 시간과 노동력을 지역의 소방업무에 제공하는 소방원으로서는 급료는 없지만 출동수당 및 공무재해보상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1679년 보스턴시의 대화재이후 방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후, 1715년 보스턴시에 6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초기 화재방어 활동에 노력하였다. 의용소방대 창설 이래 1718년에는 보스턴시에 상호소방협회를 설립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지역의 재산구조 및 진화 작업을 병행하게 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최초 민간 소방조직이었고, 이 제도는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의용소방대원 자격은 미국 NFPA 코드에 규정된 직업소방관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직업소방관은 정규 근무시간에 배치되고 정례기준에 맞는 보수가 지급 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들은 회의, 훈련기간, 비상대응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무를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이할 뿐이다. 또한 소방교육훈련은 유형과 양, 질의 바람직한 지표를 설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데, 직업소방관과 유급상비대원·의용소방대원들은 연초에 수립된 종합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3.2 일본

일본은 1888년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공설소방조직은 적었으며, 대부분 사설 소방조직이었다. 1896년 내무성이 소방규칙을 공포하고, 1939년 경방단령 29호로 소방조는 경방단으로 개조되어 화재의 경계 및 진압, 기타 재해의 방재 및 피해의 경감 등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市町村의 공적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소방단은 정규소방과 위상을 같이하여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는 소방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역할과 함께 화재의 예방 방재의 계몽 보급 활동을 수행한다. 소방단에 관한 업무는 자치성 소방청의 경우에는 본청 소방과에서, 현의 시 소방본부(소방국)는 소방부 소방과 소방단계에 단원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교육은 모든 소방단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며, 간부교육은 부단장 이상을 대상으로 간부로서의 책무와 지휘지도력을 교육한다. 또한, 임무반별 교육은 각 임무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신입단원 교육은 신입단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2.3.3 영국

영국에서의 체계적인 소방조직 탄생은 런던 대화재(1666년)이후 1668년부터 1680년까지 여러 개의 화재 보험회사가 창설되어 각 보험회사에 소방대가 설치되었으나 보험가입대상물의 화재만을 담당하였다. 의용 소방대가 점차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영국 전역에 의용소방대가 보급되고 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런던의 경우도 1866년에 수도소방대 조례가 제정되어 런던지구 내에서 소방의 책임이 비로소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방은 지방정부 책임 하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나 읍면 수준에 대하여는 소방의 책임이 없다. 비상근소방대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하고, 급료와 출동수당을 받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점은 거의 상근소방과 유사하다.

2.4 의용소방대의 특성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과 연결된다. 의용소방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성이 있다. 의용소방대원의 입대와 탈퇴가 자유의지에 의해 행해진다. 다만, 입대 이후에는 법률에서 정한 활동과 역할을 함께 하여야 하는 법적인 봉사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봉사성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기본적으로 소방업무의 보조자로서 관설 소방력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재난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내 화재

예방 등의 각종 소방홍보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이다.

셋째, 무급성이 있다.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은 무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의용소방대는 출동 시 일정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것을 보수로 보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나 식대와 같이 실비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공익성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쫓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도움을 준다. 도움이 필요한 자의 정치, 종교 등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봉사 목적을 지닌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의 의용소방대처럼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의용소방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중 미국과 일본의 민간의용소방 조직 운영의 특성과 국내 의용소방대와의 비교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소방체계는 근본적으로 직업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을 ‘하나의 소방관이라는 맥락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전체 소방관 중 약 70%가량을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조직의 형태나 급여 등의 차이가 있지만, 임무의 특성 및 교육·훈련의 형태 등은 직업소방관과 유사한 면이 많다. 의용소방대 근무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전반적인 소방업무를 주도하여 행정 및 운전 등의 임무를 갖는 곳도 있고 주 간에는 직업소방관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게 하는 곳도 있으며 의용소방대원들 사이에서 순번을 정해 정해진 날짜에 맞춰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 교육·훈련의 경우 직업소방관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 훈련을 받으며 직업소방관과 같이 소방관련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의용소방대원은 입대 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일정기간의 기초 교육훈련 과정(소방학교) 및 정기적 보수교육 이수가 임무수행의 전제 조건이다. 임무수행을 전제로 한 임무(기능)별 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철저한 평가 및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의용소방대인 소방단은 화재진압, 경계 및 방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소방활동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구성되는 소방단은 평소에 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출동 상황발생 또는 소방업무상 필요시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 하는 비상근의 특별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일본의 의용소방대 운영의 특징은 법체 계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전통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이 영·미 국가에 비해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강하다.

Table 1은 일본의 관설 소방기관과 소방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 현황으로써 소방단의 경우 펌프차는 일본 전체 중 약 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조부 펌프차의 경우에도 일본 전체 중 약 19%를 보유하고 있다. 소방단의 경우 많은 수의 펌프차를 보유하고 소규모 시정촌의 농어촌 화재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 또한, 소방단은 자체의 지휘차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방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로 하는 화학차, 구급차 및 구조차 의 경우 관설 소방기관에서만 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방단의 경우 특수하고 복잡한 재난에서의 대응보다는 소규모의 단순 화재에 적합한 활동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Table 1. 일본의 관설 소방기관과 소방단의 보유 주요 장비 현황⁽⁸⁾

(Unit: Number)

Type of Vehicle	Fire Fighting Institution	Firefighting Brigade	Sum
Pumper	4,002	13,572	17,574
Water Tank	3,851	879	4,730
Command car	1,966	832	2,798
Chemical Fire Truck	1,028	6	1,034
Ambulance	5,967	0	5,967
Rescue Vehicle	1,247	0	1,247

일본도 미국과 같이 기존 소방단원들에 대한 소방기술 및 능력 발전은 물론 신규 대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기술과 지휘력을 겸비한 단계별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방단원에 대한 교육은 각 지역의 소방본부와 소방대학교, 도·부·현에 설치된 각 소방학교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교육에 대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중앙소방학교나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방단원들이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소방학교의 전문 강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소방단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의용소방대와 조직 및 활동면에서 비교해보면, 미국의 의용소방대 조직은 해당 마을의 규모 및 인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의용소방대의 경우 단순히 소방업무의 보조자이기 보다는 봉사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마을의 안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의용소방대의 조직 체계는 대동소이한 형태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체계를 띄고 있다. 이런 획일적인 체계는 의용소방대원의 유연하고 자발적인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소방업무의 보조자로서 업무수행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직업소방관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에 대한 교육·훈련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및 기존 대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진행하여 의용소방대 자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Table 2. 한국과 외국의 의용소방대 교육 비교⁽⁹⁾

(Unit: Number)

Type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U.S.A (Manhattan City, New York State)	Japan (Yokohama)
First Education	Self education / Fire station	2~3 Month / EMT	24 Hours / Fire fighting school
Regular Education	4 hours-self education per month (Fire station, center)	Responsibility to take periodical continuing education per qualification	Self continuing education
Specialized Education	-	Education about mission and Training in specialized institution	Responsibility to take 4~7 hours-specialized education per year

Table 2는 국내와 국외의 의용소방대의 교육 비교로써 미국은 EMT에서 초임교육이 2~3개월, 일본은 소방학교에서 24시간이지만 국내는 소방서에서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일본과 국내는 정기교육이 자체교육인 반면 미국은 자격별 정기보수교육이 필수 이수교육으로 되어있다. 전문교육은 국내는 없으나 미국은 임무별로 일본은 과정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하고 일회성 교육을 벗어나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지식과 소방안전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국외를 참고하여 소방기관에서는 분야별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5 충남 농어촌 마을 현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과 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고,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과 동 의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마을’이란 사전적 의미로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집단들’로 정의한다.

농어촌 마을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외의 도시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충청남도의 농어촌 지역 중 하나인 청양군과 충청남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천안시 및 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유성구와 인구통계, 교육·복지·문화시설의 거주환경 통계, 소방 안전 서비스 통계를 비교·분석하였다.

Table 3. 인구의 변화⁽¹²⁾

(Unit: Person)

	2005yr	2010yr	2015yr
Cheongyang	34,921	32,541	32,485
Cheonan	512,482	557,673	605,776
Daejeon Yuseong-gu	220,767	281,692	335,312

Table 4. 평균 연령의 변화⁽¹²⁾

Unit: Age)

	2005yr	2010yr	2015yr
Cheongyang	46.9	49.9	50.7
Cheonan	32.4	34.6	36.9
Daejeon Yuseong-gu	31.4	33.1	35.5

Table 5. 노령화 비율⁽¹²⁾

(Unit: %)

	2012yr	2014yr	2016yr
Cheongyang	317.9	340.5	364.1
Cheonan	49.3	52.5	55.8
Daejeon Yuseong-gu	23.0	28.2	39.9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Table 3의 천안시와 청양군의 인구변화에서 천안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약 9만명이 증가하였고 유성구의 인구도 천안시와 유사하게 2005년부터 10년간 약 11만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청양군은 약 2,500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Table 4의 청양군과 천안시 및 유성구의 평균연령 변화에서는 세 지역 모두 2005년

부터 2015년까지 평균연령은 증가하고 있으나 천안의 평균연령이 청양에 비해 약 14세 정도 낮고 유성구가 청양군에 비해 약 15세 정도 낮다.

Table 6. 의료기관의 수⁽¹⁴⁾⁽¹⁵⁾

(Unit: Number)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Cheongyang	0	3	10
Cheonan	13	127	986
Daejeon Yuseong-gu	1	2	165

Table 7. 평생교육시설의 수⁽¹⁴⁾⁽¹⁵⁾

(Unit: Number)

	Public Library	Museum	Youth Facility	Cultural Facility	Welfare Hall
Cheongyang	2	0	2	1	2
Cheonan	59	46	35	28	46
Daejeon Yuseong-gu	6	7	2	5	2

Table 5의 노령화율에서 세 지역 모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청양군이 천안시나 유성구에 비해 증가 폭이 크고 노령화율도 약 6~9배 정도 높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농어촌 젊은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복지·문화시설의 거주환경 통계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천안시가 13개, 유성구가 1개인 반면 청양군은 한곳도 없고, 일반병원도 천안시는 127개, 유성구는 2개인 반면 청양은 3개이며, 의원 수도 천안시 986개, 유성구 165개로 청양 10개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7의 평생교육시설 수도 천안시는 공공도서관 59개, 박물관 46개, 청소년시설 35개, 문화시설 28개, 복지회관 46개이고 유성구는 공공도서관 6개, 박물관 7개, 청소년시설 2개, 문화시설 5개, 복지회관 2개이지만 청양은 공공도서관 2개, 박물관 0개, 청소년시설 2개, 문화시설 1개, 복지회관 2개뿐이다.

Table 8의 문화·예술시설 수도 천안시의 경우 공연장 37개, 영화관 16개, 미술관 8개가 있고 유성구의 경우 공연장 6개, 영화관 11개, 미술관 12개가 있지만 청양군은 공연장 1개만 있을 뿐이다.

Table 8. 문화예술시설의 수⁽¹⁴⁾⁽¹⁵⁾

(Unit: Number)

	Concert hall	Cinema	Art gallery
Cheongyang	1	0	0
Cheonan	37	16	8
Daejeon Yuseong-gu	6	11	12

Table 9. 천안과 청양의 주민만족도⁽¹³⁾

(Unit: %)

	Satisfaction of Medical Institution	Satisfaction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y	Satisfaction of Culture and Arts Facilities
Cheongyang	23.4	20.1	20.9
Cheonan	54.9	39.1	59.8

Table 10. 유성구의 거주환경 만족 가구의 비율⁽¹⁵⁾

(Unit: %)

Year	Ratio of Satisfied Households							
	sum	Culture Facility	Traffic Facility	Education Facility	Economic Coddition	Close to Work Place	Natural Environment	Etc
2016	100.0	21.1	21.7	7.2	1.5	20.1	26.8	1.5

Table 9의 청양군민과 천안시민 대상의 의료, 교육,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8.9%p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1.5%p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에 대전시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만족’을 응답한 비율이 62.1%이고 ‘불만족’하는 가구는 7.9%로 나타나 54.2%p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유성구의 거주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의 거주환경 만족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잘 가꾸어진 자연환경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문화시설 부분이 만족하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Table 11. 청양, 천안, 유성구의 면적 대비 소방력 지수⁽¹⁴⁾⁽¹⁵⁾

(Unit: Number)

Fire Station	Area(km ²)	Population (Person)	The Number of Fire fighters (Person)	The Control Area per Fire Fighter (km ²) [Area/Fire Fighters]
Cheongyang	479.21	32,753	82	5.84
Cheon-an West-North	199.02	358,337	182	1.09
Cheon-an East-South	437.12	259,618	155	2.82
Northern Part of Daejeon	130.61	292,539	209	0.62

농어촌을 대표하는 청양군과 도시를 대표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비교한 특징을 살펴보면 Figure 1과 같은 순환구조를 보인다.

농어촌의 경우 교육·복지·문화시설의 거주환경 인프라가 저조하고 낙후도가 높기에 그 지역민의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게 나타났으며, 젊은 경제활동 층이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민의 고령화가 증가되었으며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거주환경 인프라가 개선되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소방안전 서비스 통계를 보면, 현재 청양소방서는 청양군을 관할하고 있고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가 천안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대전 북부소방서에서 유성구를 관할하고 있다.

Table 11의 현황을 보면 청양이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으나 인구가 적고, 넓은 면적에 비해 소방관수가 82명으로 적어 소방관 1인당 관할 면적이 5.84km²에 해당한다. 천안시의 경우 소방관 1인당 관할 면적이 서북은 1.09km², 동남은 2.82km²로서 소방관 1인당 평균 1.9km²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전 유성구의 경우 소방관 1인당 관할하는 면적이 0.62km²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소방관 1인당 관할하는 면적을 비교하면 청양소방서 소방관 1인의 경우 천안 내 소방관 1인의 관할 면적보다 3배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유성구 내의 소방관 1인의 관할면적보다 9.4배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Figure 1. 농어촌 거주지역의 악순환

Table 12. 화재 5분 출동율⁽¹⁶⁾

(Unit: %)

Fire Station	2015yr	2016yr
Cheong-yang	57.3	47.9
Cheon-an West-North	87.6	83.1
Cheon-an East-South	74.2	77.6
Northern Part of Daejeon	86.1	62.8

농어촌과 도시의 소방관 1인당 관할면적의 차이가 있듯이 사고현장에 대한 5분 출동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12의 5분 출동율을 보면, 청양소방서의 경우 2015, 2016년 동안 5분 출동율이 각각 57.3%, 47.9%에 해당했다. 그러나, 천안 서북소방서의 경우 각각 87.6%, 83.1%로 나타났으며, 천안 동남소방서의 경우 각각 74.2%, 77.6%로 청양소방서보다 5분 출동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전 북부소방서의 경우 2년 동안 5분 출동율이 86.1%, 62.8%를 나타내 청양소방서보다 2015년에는 28.8%p 높았고, 2016년에는 14.9%p 높았다.

5분 출동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출동거점 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소방관 1인당 관할면적의 차이처럼 농어촌과 도시간의 출동거점 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 Figure 2에서 보듯이 천안시의 경우 2개의 소방서와 9개의 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1개의 소방서와 1개의 119안전센터가 있는 청양군에 비해 5분 출동 가능지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에도 북부소방서 1개와 5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어 전 관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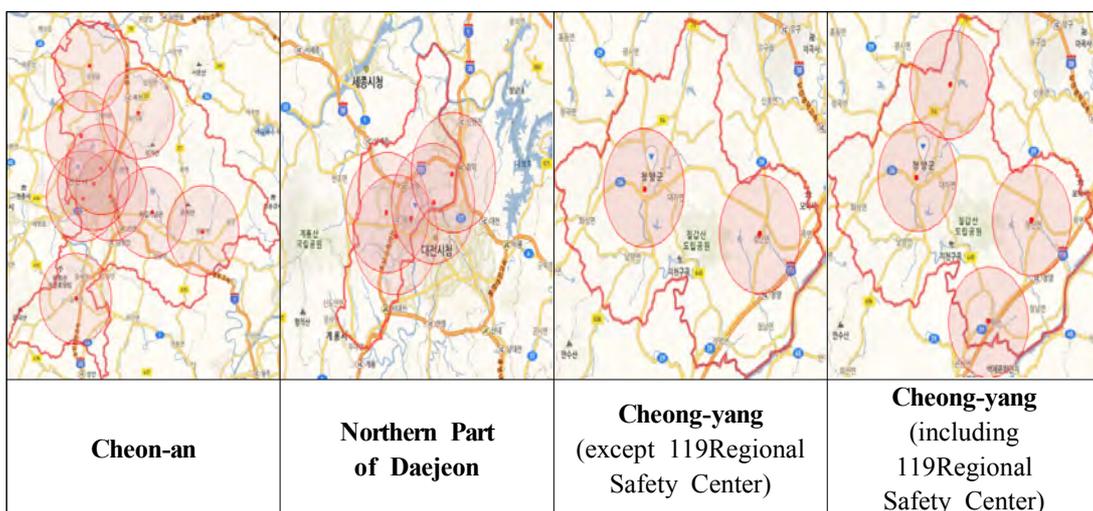


Figure 2. 5분 출동 가능 지역

농어촌 마을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의 경우 거주환경 인프라가 저조하고 낙후도가 높기에 그 지역민의 거주 만족도가 떨어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 측면도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관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출동거점수가 적어 도시지역에 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의 관설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대상의 예방활동 및 순찰활동, 초기대응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대상물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형태를 띠는 도시 보다는 농어촌의 경우 단순한 형태의 소방대상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방안전 교육과 농어촌 화재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제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6 농어촌 소방안전 정책 현황

현재까지 농어촌 소방안전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이거나 추진했던 소방안전 정책을 검토하였다.

첫째, 119화재초기진압대의 경우 마을이장, 의용소방대원 등 마을주민 5~10명이 농약분무기, PE물통, 소화기 등의 진화장비를 적재한 경운기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어촌 원거리지역 화재 발생 시 소방력의 현장도착 전까지 119화재초기진압대를 이용해 화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둘째,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방관서로부터 10km 이상 원거리 지역 및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며, 100m 활용반경을 가진 경량화된 호스로 소방력 현장도착 전까지 초기화재대응기반을 위한 것으로 호스릴(25mm) 2분, 가압펌프(2마력)로 구성되어 호스를 당긴 후 밸브만 열면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119화재초기진압대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간단히 장비 사용방법 교육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겨울에 동파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셋째, 화재 없는 마을의 경우 도서·벽지, 산간·오지마을, 농어촌 지역 대상으로 주택 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지정된 마을에는 소방공무원이 찾아가 독거노인 등 기초건강체크, 전기·가스 시설 점검, 기초소화시설(소화기, 단독경보기) 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소방관서로부터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 부족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넷째, 119안전살핌이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담당마을의 취약계층에 찾아가 기초 건강체크, 전기·가스 안전점검, 기초소화시설 점검 등 소방안전 서비스를 하는 정책으로 관(官)인 소방대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단점이 있다.

4개의 농어촌 소방안전 정책에서는 주로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마을에 설치해주고 소방공무원이 사용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거나 각종 사고예방 방법을 교육 및 지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제한적 인력의 소방공무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결과 주민 밀착형 교육 및 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 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 정책 시행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전체 농어촌마을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사각지역 해소에 한계가 있다.

3.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시범사례 분석

3.1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개념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교육, 순찰,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는 제도이다.

의용소방대의 운영현황 및 농어촌 현황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는 다음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조직을 지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이라도 지리과약이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또는 인근 마을을 담당마을로 지정해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거주 주민과의 친밀성을 활용해 참여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담당 마을의 지정을 통한 의용소방대원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상황이나 소방관서 주도의 캠페인 등에 참여해 주로 보조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마을담당제는 의용소방대원 3~5명을 한 팀으로 조직해 2~5개 소규모 마을을 소방안전 활동 담당 마을로 지정하였다. 담당 마을의 지정으로 해당 팀은 주도적으로 소방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마을 주민 대상으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해 마을 주민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마을담당제 활동에 필요한 지식습득 및 훈련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대상의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간부급 대원 대상의 소방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담당 의용소방대원은 안전센터 소집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는 순회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겨울철에 농어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점검방법 및 노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점검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와 점검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 담당마을 주민대상의 설치 홍보와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담당마을 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확인해 예방행정에 중요한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단순한 예방점검 및 순찰을 지양하고자 ‘주택 소방안전점검표’라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명확하게 하였다. 점검표를 이용하여 화재취약요인 진단과 전기·가스 등 점검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 파악 및 설치를 지원하며 독거노인 등의 화재취약가정 특별관리, 겨울철 화목보일러 점검, 봄·가을 들불 및 쓰레기 소각 관련 예방 순찰,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교육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현지 확인점검 및 의용소방대원 활동사항을 119안전센터에서 기록하도록 하였다. 충청남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분기마다 1회 이상 마을담당제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하도록 하였으며 각 소방서에서는 마을담당제 책임간부가 월 1회 이상 3~5개 마을 대상으로 현지 표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마을담당제 활동사항에 대해 활동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집수당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사항을 119안전센터 근무일지에 작성하여 소방관서의 감독 하에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2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시범사례 분석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시행에 앞서 충청남도 홍성소방서에서 2016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2016년 홍성군 전체 141개 리 3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2~3명을 1개팀으로 구성(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 601명)하였고 해당 마을 거주 의용소방대원이 없을 시 인근마을 거주 대원으로 지정하였다. Table 13의 의용소방대 거주현황을 보면 총 141리 중 119리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다.

Table 13. 의용소방대 거주 현황

(Unit: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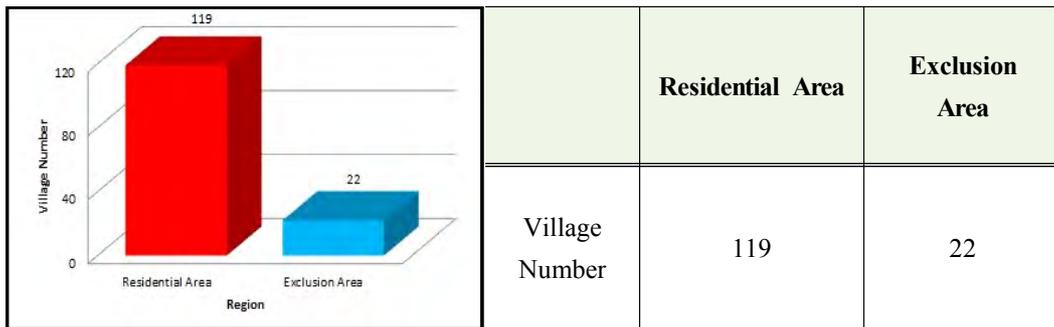


Figure 3. 의용소방대 마을담당대원 명패



목 차	
1	소화기 사용법 1
2	심폐소생술 교육 4
3	화목보일러 안전교육 9
4	축사화재 예방교육 12
5	가스관련 안전교육 15
6	홍수예 대비요령 17
7	아파트 화재예방 교육 19
8	애방기 안전관리 20
9	물놀이 안전교육 21

Figure 4.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교육 자료

마을별 담당 팀 구성 후에는 Figure 3처럼 사진을 삽입한 명패를 제작해 마을회관이 나 경로당에 비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대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민들이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쉽게 연락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기적으로 농번기인 5~6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팀별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을 주로 실시하였고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동기 소방서 소방 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마을담당제 교육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분기별로 정기적인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 Figure 4는 홍성소방서에서 사용한 교육매뉴얼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 화목보일러 안전교육, 축사화재 예방교육 등 9개로 나뉘져 있다.

또한, Figure 5처럼 마을담당제 취지 및 목적을 안내하여 각자 담당 마을의 소방



Figure 5.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교육 사진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고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기 안전공사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다수의 1급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Table 14의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내역을 보면 845회 활동에 참여 인원 4,342명, 소방안전교육 등 10,50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Table 14.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내역

(Unit: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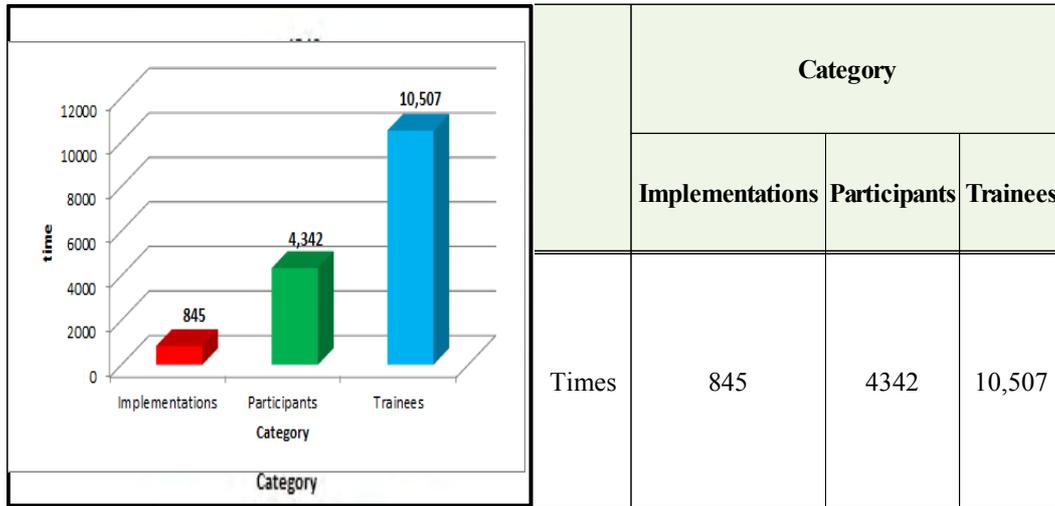


Figure 6. 마을담당제 활동 사진

Figure 6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마을담당제 활동사진으로, 좌측 사진은 홍동의용소방대의 수란리 화목보일러 점검 활동이고, 가운데 사진은 구향의용소방대의 장양리 소화기 교육 사진, 우측 사진은 갈산의용소방대 소속 와리 담당팀이 마을회관에 소방안전 사고예방 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의 사진이다.

Table 15의 각 활동별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캠페인 등 대별 전체 활동에 비해 조별로 가가호호 방문 활동을 통한 마을담당제 소집수당은 적게 지급되었으므로 주민에 대한 소방안전 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되었다.

Table 16의 홍성소방서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비해 2016년 전체 화재건수는 10건 증가하였지만, 마을담당제의 들불 및 쓰레기 예방순찰 활동으로 들불은 4건 쓰레기 화재는 15건 감소하였다.

Table 15.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내역

(Unit: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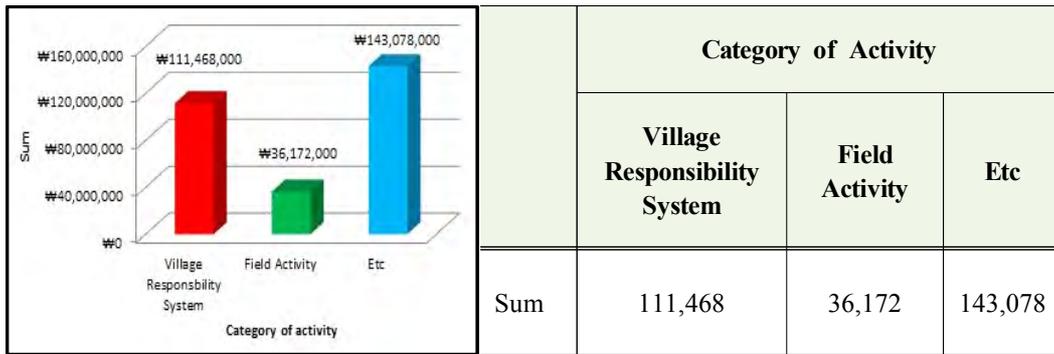


Table 16. 홍성소방서 화재 발생 현황⁽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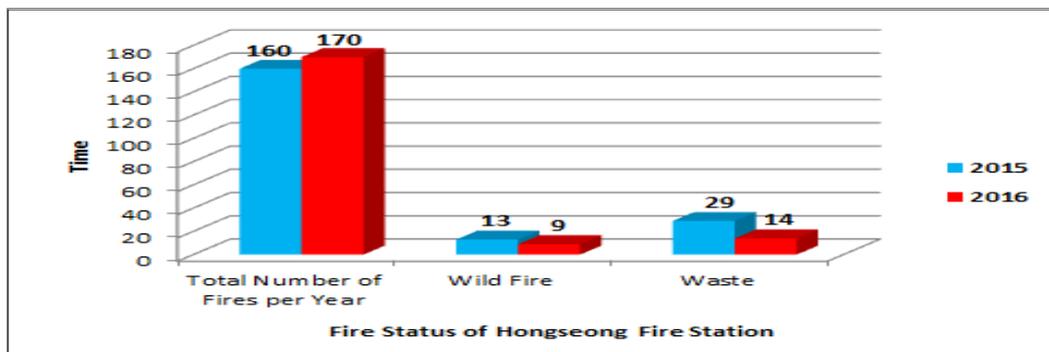


Table 17.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세부 개요

(Unit: Number)

Fire Station	Sum	Dongnam	Seobuk	Gongju	Boryung	Assa	Seosan	Nonsan	Gyeryong	Dangjin	Geunsan	Buyeo	Seocheon	Cheongyang	Hongseong	Yesan	Taeam
Villages (Administrative Area)	4,339	239	211	248	234	405	264	422	68	221	255	433	316	183	341	311	188
Designated Villages	4,471	225	212	248	349	339	262	486	42	271	257	435	316	183	350	309	187
Team	2,145	152	70	100	164	115	102	162	26	171	136	218	141	122	132	218	116
Member	8,510	644	320	430	699	449	444	616	128	682	511	864	606	547	529	652	389

4.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운영 및 결과 분석

4.1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운영방법

2017년 충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Table 17의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세부개요를 보면 충남 전지역의 행정마을 4,339개소에서 부락까지 포함하여 총 4,471개소를 대상으로 16개 소방서 8,51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3~5명의 1팀로 총 2,145팀을 운영하였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에서의 의용소방대원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 및 교육으로써 농촌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재로는 화목보일러 화재나 농산 폐기물 소각에 의한 화재로 그 원인은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이에 의소대원들이 화재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겨울, 봄철 담당마을 곳곳을 방문, 순찰하며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올바른 화목보일러 사용법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시 주의할 점을 교육한다. 그밖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축사나 아파트에서 관계자 및 주민을 교육한다.

둘째,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교육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각 세대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사용법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설치현황 파악과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기증 등과 같은 일을 한다.

셋째, 119수호천사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팀 편성 시 남성·여성 대원을 혼합 편성하여 그 중 수호천사(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여성대원을 활용, 지역 주민에게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보급한다.

그밖에 생활안전 관련 교육으로 가스 및 전기사용 안전교육, 해빙기 등 계절위험요인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교육 등을 한다.

Figure 7은 교육사진으로 이러한 마을담당제의 의미와 시행방법, 소방본부의 시행의지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전달하고자 충청남도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이 직접 상반기 동안 집합교육 및 소방서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Table 18.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세부 실적

(Unit: Number)

Contents	village visit		Education						Prevention		PR.		Number of attached PR posters
			Inspecting and training about Fire protection system		Instruction about Safety Use of Boiler		Inspecting about safety use of electricity and gas		Wild fire Preventative Patrolling		Fire Precaution Campaign		
	No. of times	Partic-ipants	No. of times	Partic-ipants	No. of times	Partic-ipants	No. of times	Partic-ipants	No. of times	Partic-ipants	No. of times	Partic-ipants	
Sum	11,848	61,914	6,570	34,790	2,523	8,517	2,720	17,847	1,688	8,771	416	7,946	7,222



Figure 7.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관련 교육 사진

4.2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결과 분석 및 고찰

충남에서 실시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운영결과를 시간과 지역적 분석 조건을 두고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2015년, 2016년, 2017년 동기간 통계를 각각 비교 분석했다. 먼저 마을담당제를 시행했던 2017년 통계인 Table 18의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세부실적을 보면 2017년 상반기 동안 마을방문 11,848회에 참가인원은 61,914명이며, 활동내용은 크게 교육, 예방, 홍보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교육은 기초소방시설 점검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기 등 교육이 6,570회 실시해 34,790명을 교육을 했고, 겨울과 봄에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지도 시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교육이 2,523회 실시해 8,517가구를 방문하여 교육했으며, 전기·가스 안전사용 점검 시 관련 안전교육을 2,720회에 17,847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화목보일러와 전기, 가스 안전 교육은 가구 수로 측정했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이보다 많다.

2017년 2월 4일부터 단독주택 등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기초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구별 설치현황에 대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그에 비해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주민이 자택에 부재 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마을담당제 활동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사용법을 교육하여 지역사회 화재로부터의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부족한 소방력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마을담당제를 통한 순찰활동은 소방서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들불이나 쓰레기 화재 예방 순찰과 물놀이 안전 예방 순찰로 1,688회 활동에 8,771명이 참여했다. 홍보는 화재예방,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 기초소방시설 관련 홍보 활동으로 416회에 7,946명이 참가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에 7,222개의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했다.

Table 19. 의용소방대 연도별 세부 실적

(Unit: Number)

		Sum	Fire Fighting	Rescue / emergency service	Fire Precaution	Joint Training / Resident Education	Prevention / PR	Assistance to Civil Authority	Patrol
2015	Times	11,325	958	496	2,860	1,633	1,251	36	4,091
	Participants	102,626	18,322	795	5,663	36,529	23,826	961	16,530
2016	Times	22,568	2,394	179	2,695	863	4,940	290	11,207
	Participants	80,622	11,213	470	7,374	6,609	31,763	1,333	21,860
2017	Times	12,675	2,011	98	1,039	688	2,862	69	5,908
	Participants	81,537	18,327	667	3,359	6,115	39,166	651	13,252

Table 19는 의용소방대 세부실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동기간 활동 실적을 비교해보았다. 2017년 총 실적은 12,675회에 81,537명으로 2016년 22,568회 80,622명에 비해 횟수가 큰폭으로 감소했고 인원은 약간 증가하였다. 2015년 11,325회에 102,626명에 비하면 횟수는 증가, 인원은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실적에 마을담당제 실적이 제외된 것이므로 2017년 마을담당제 실적을 포함하면 전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다. 의용소방대 대수와 대원수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의용소방대 총 활동 실적은 증가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의 실적 증가는 의용소방대원의 참여도 증가로 해석 가능하고⁽¹⁰⁾ 참여도는 참여동기, 인정 및 보상 등과 관계있는 활동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¹¹⁾. 결국 의용소방대 실적 증가는 의용소방대원 본인이 담당마을의 안전지킴이라는 자긍심 고취로 인한 참여동기 증가와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인해 활동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결과에 도출 가능하다.

둘째, 지역적 차이를 바탕으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북 의용소방대 활동현황과 비교해보았다.

Table 20의 충남과 전북의 현황을 보면 면적은 충남 8,214km², 전북 8,067km²이고, 인구

는 충남은 약 2백만명, 전북은 약 1백 8십만명이다. 소방대원 수는 충남 2,422명, 전북 2,074명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의용소방대원 전체 인원도 충남 10,367명, 전북 8,220명으로 충남과 전북의 소방인프라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관 1인당 관할하는 면적도 충남의 경우 3.4km²이고 전북은 3.9km²이며,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도 충남이 866명, 전북이 896명으로 비슷하다.

Table 20. 충남과 전북의 현황 비교

(Unit: Number)

	Area (km ²)	Population (Person)	The Number of Fire fighters (Person)	The Number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Person)	The Control Area per Fire Fighter (km ²) (Area/Fire Fighters)	The Control A Population Per Fire Fighter (Person/Fire Fighters)
Chung-nam	8,214	2,096,727	2,422	10,367	3.4	866
Jeon-buk	8,067	1,857,815	2,074	8,220	3.9	896

Table 21. 전북 의용소방대와 실적 비교

(Unit: Number)

		Sum	Fire Fighting	Rescue / emergency service	Fire Precaution	Joint Training / Resident Education	Prevention / PR	Assistance to Civil Authority	Patrol
Chung-nam	Times	12,675	2,011	98	1,039	688	2,862	69	5,908
	Participants	81,537	18,327	667	3,359	6,115	39,166	651	13,252
Jeon-buk	Times	2,988	220	31	92	137	1,758	11	739
	Participants	39,824	2,763	435	730	891	30,078	293	4,634

Table 21의 충남과 전북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충남의 총 활동 횟수는 12,675회, 전북은 2,988회로 5배 차이가 나며 그 결과 총 참여인원도 충남 81,537명에 전북은 39,824명으로 충남이 월등히 높았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과 같이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에서 활동하지 않는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육 및 훈련은 충남이 688회에 6,115명이 참가했고 전북은 137회에 891명이 참가했으며, 홍보활동에는 충남 2,862회에 39,166명이 참가, 전북은 1,758회에 30,078명이 참가, 지원활동은 충남 69회에 651명이 참가, 전북은 11회에 293명이 참가했다. 특히 순찰활동은 충남 5,908회에 13,252명이 참가했고, 전북은 739회에 4,634명이 참가하는 등 전북에 비해 충남의 실적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경기, 강원, 경북의 소방활동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Table 2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인프라 여건이 좋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비록 지원활동 실적은 빠져있지만 충남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2. 타시도 의용소방대 실적 비교

(Unit: Number)

		Sum	Fire Fighting	Rescue / emergency service	Fire Precaution	Joint Training / Resident Education	Prevention / PR	Assistance to Civil Authority	Patrol
Chung-nam	Times	12,675	2,011	98	1,039	688	2,862	69	5,908
	Partici-pants	81,537	18,327	667	3,359	6,115	39,166	651	13,252
Gyeong-gi	Times	10,422	1,554	954	394	1,757	1,806	-	3,957
	Partici-pants	64,307	8,613	1,285	2,010	23,019	19,481	-	9,899
Gang-won	Times	9,272	617	160	350	82	2355	-	5,708
	Partici-pants	73,789	8,845	1,509	8,879	1,029	25,267	-	28,260
Gyeong-buk	Times	3,451	687	22	100	95	1,384	-	1,163
	Partici-pants	49,156	7,160	127	2,951	881	25,841	-	12,196

이처럼 시간과 장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의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활동실적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담당제 운영결과를 통해 얼마만큼의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재발생 통계를 분석했다.

첫째,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 내역 중 주택 전기 점검 예방 활동이 있다. 이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Table 23의 주택화재 중 전기요인 화재 현황을 보면 우선 기간은 각 연도별 1월~6월까지의 실적으로 2015년에는 총 주택화재 건수 360건 중 전기요인은 46건을 차지하고 있었고, 2016년에는 총 주택화재 건수 309건 중 전기요인은 46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7년에는 총 주택화재 건수 312건 중 전기요인은 41건으로 2015년, 2016년에 비해 10.8%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들불과 쓰레기 소각 화재 예방 순찰활동에 따른 들불 및 쓰레기 화재 통계를 분석하였다. Table 24의 들불과 쓰레기화재 현황을 보면 들불화재인 경우 전국화재는 2015년 1299건, 2016년 1098건에서 2017년 1528건으로 증가했으나, 충남의 경우 2015년 161건, 2016년 146건에서 2017년 145건으로 감소했다. 쓰레기 화재의 경우 전국화재는 2015년 1837건, 2016년 1594건에서 1820건으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충남의 경우 2015년 82건, 2016년 53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반대로 감소했다. 올해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들불 등 화재건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충남은 오히려 전년대비 24.3%가 감소하였다.

Table 23. 주택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현황⁽¹⁶⁾

(Unit: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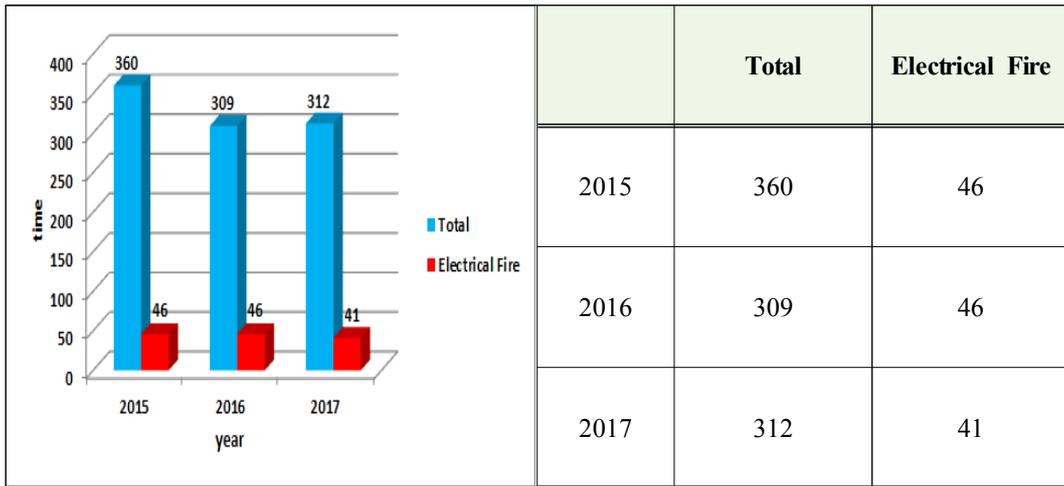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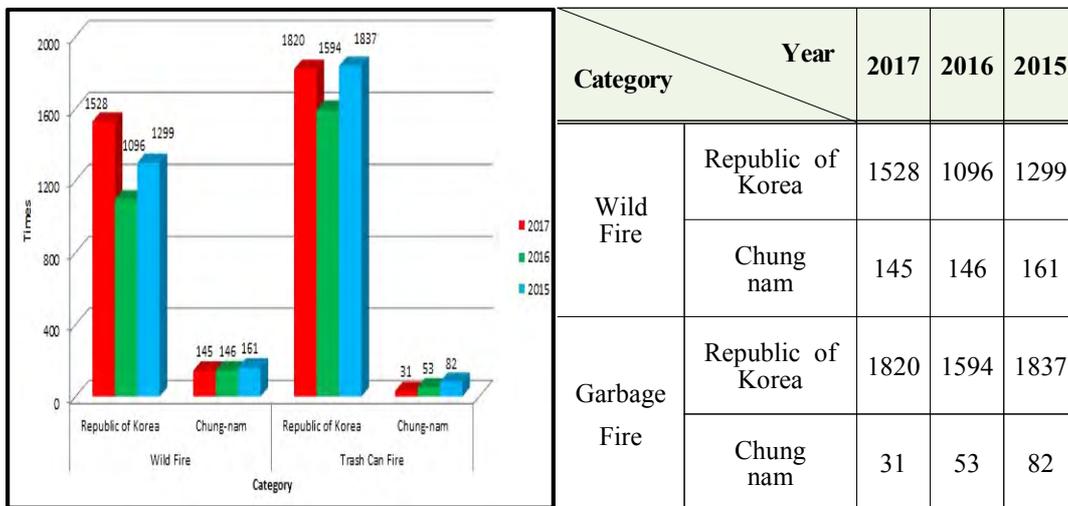


Table 24. 들불 및 쓰레기 화재 현황⁽¹⁶⁾

(Unit: Times)



5. 결 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소방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제한적인 소방력으로 극복하기란 어려움이 따르므로, 과거 재난현장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라는 정책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은 담당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방안전 활동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운영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시범사례를 분석해 보면 845회 활동에 의용소방대원 4,342명이 참가해 총 10,50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 동일기간 동안 마을담당제의 주민 밀착형 소규모 팀 활동과 의용소방대별 캠페인 등에 지급된 활동수당은 각각 1억 1천만원, 1억 4천만원으로 수당지급 대비 지역 주민 대상의 소방안전 활동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홍성소방서 전체 화재 건수는 2015년 160건에서 2016년 17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들불은 13건에서 9건으로 쓰레기는 29건에서 14건으로 감소하였다. 마을담당제 운영을 통한 들불 및 쓰레기 소각 예방 순찰활동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셋째,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분석해 보면 2015년 11,325회 활동에 102,626명 참가, 2016년 22,568회 활동에 80,622명 참가에 비해 2017년은 총 24,523회 활동에 참여자는 143,45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의 마을담당제 활동만족도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마을담당제 운영으로 2017년 상반기 동안 지역 주민 대상의 소방안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충남 의용소방대 활동 횟수는 소방인프라가 유사한 전북 의용소방대의 동기간 활동 횟수보다 5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마을담당제 운영결과와 농어촌 소방사각지대 해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을담당제를 통한 가구별 전기안전 점검 및 주민 대상의 예방활동으로 2017년도 상반기 전기요인에 의한 주택화재 건수는 2015년, 2016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8%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전국의 들불화재 건수는 2015년 1,299건, 2016년 1,098건에서 2017년 1,528건으로 증가했고 쓰레기 화재 건수도 2015년 1,837건, 2016년 1,594건에서 2017년 1,820건으로 증가했으나, 충남의 경우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속적인 들불 및 쓰레기 소각 순찰활동으로 들불의 경우 2015년 161건, 2016년 146건에서

2017년 145건으로 감소했고, 쓰레기 화재의 경우 2015년 82건, 2016년 53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점차적으로 제한된 관설 소방력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용소방대원 자신들이 거주하는 농어촌마을의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 할 것이고, 현재 관설 소방력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소방안전도는 더욱더 향상될 것이다. 향후 국내 전국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소방환경과 의용소방대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의 지속적인 사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영찬(2016). 의용소방대 개선방안 연구:해외 및 청양군 사례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7-16
- (2) 우성천(2015).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9(2). 54-63.
- (3) 박찬성(2011). 의용소방대장 리더십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5(2). 9-22
- (4) 이강일 한국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관한 연구, 63-80
- (5) 구원희, 신호준, 백민호(2015).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농촌지역 재난이력 조사. 한국방재학회 논문지. 14. 143
- (6) 박미리, 이영균(2016), 농촌지역의 재난관리 민관조직 연계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2(4). 321-328
- (7) 류창진(2013), 의용소방대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학위논문, 6
- (8) 이의평(2011). 일본 의용소방대 실태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5(6). 4-50
- (9) 송원규(2015), 의용소방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
- (10) 이원주, 오현철, 이기영(2016).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0(4). 148-157
- (11) 심선봉(2011). 조직문화가 자원봉사자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림대학교, 학위논문 1-67
- (12) 국가통계포털 KOSIS, 주제별통계 ?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13) 충남 통계정보관, 충남 사회지표 조사 보고서 2-시군편 p,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STAMENU00030&mnu_url=/cnbbs/view.do?board_seq=164067&code=245
- (14) 충남 통계정보관, 통계 연보
<http://www.chungnam.go.kr/statsMain.do>
- (15) 유성구, 통계연보
http://www.yuseong.go.kr/?page_id=11178
- (16)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현황 현장도착시간대
<http://www.nfds.go.kr/rdPage.jsf>

IV. 참고자료

1. 신문보도 사항

중도일보

2017년 02월 22일 (수)

정치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 홍성현 의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경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홍성현 의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임에는 김문규(천안5), 조이환(서천2), 장기승(아산3), 오인철(천안6)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김연웅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내포=맹창호 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첫 발'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지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성현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응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으며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사진)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

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의원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

22일 의용소방대 역할·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

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웅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오천수 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 발족

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이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 모임은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해 김연웅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능했다.

연구모임은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의용소방대 역할·활성화 모색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첫발'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지정임 기자 jjj2516@daillycc.net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웅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활성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천안1)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 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응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효상 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 자유통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유통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응 천안시의원, 강창환 충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월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천안5)·조이환(서천2)·장기승(아산3)·오인철(천안6) 의원을 비롯한 김연응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제시한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성현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 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응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2월 22일 (수)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 홍성현 의원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 홍성현 의원 © 백제뉴스

2017년 2월 22일 (수)

[내포=로컬투데이] 주영욱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22일 (수)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한다

22일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2017년 02월 22일 (수) 14:35:30

김광섭 기자 ✉ stopksk@hanmail.net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네트워크 뉴스 TV

세종 nTV

2017년 2월 22일 (수)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장기승 의원(아산3), 오인철 의원(천안6)을 비롯한 김연응 천안시의원, 강창환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파고=충남/한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 사진)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 **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기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

기사입력 2017/02/22 [23:26] 최종편집 © 뉴스충청인



📄 📖 ✉️ +가 -가

김수환 기자 ✉️



[내포=뉴스충청인]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대표=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 홍성현 의원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11월까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성과공유...정체성 재정립으로 변화해야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천안동남소방서 4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모임에는 홍성현 의원을 비롯하여, 김문규 도의원, 조이환 도의원, 김연응 천안시 의원, 김근제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강창환 충청남도의회용소방대연합회장 등 회원 25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홍 대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구모임 활동 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수 의용소방대 및 소방관서 중에 현장견학 대상을 선정하여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김근제 과장의 현황 설명과 회원들의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문규 의원은 김 과장의 현황설명에서 ‘호스릴소화전’이 턱 없이 부족한 점을 주시하여 1대당 400M기준 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화재현장에서 의용소방대와 관의 소방대원과 현격한 나이차이로 의용소방대를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으며, 의용소방대 대장 임기를 연임하는 방안, 의용소방대 간부들의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과장은 즉각 감찰실시와 철저한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대장의 임기 연임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규정을 만들겠다고, 또한 의용소방대 간부의 리더십 교육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연응 의원 등 회원들은 소방대원의 기초 장비(방화복, 헬멧 등)부족과, 가구마다 소화전 비치를 건의하자, 김 과장은 소화기는 저 소득층 가구에 우선 배치하고 있지만 전 가구에 보급 역시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정립을 위해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여건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마을 소방수혜 불균형 해소와 의용소방대의 업무비중 저하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다양한 의견과 토의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 질 높은 성과를 보였다.

정경숙 기자

충남도의회,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수혜 불균형 제기

충남도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수혜 불균형 해소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은 25일 천안동남소방서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수혜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홍성현 대표(천안1)를 비롯한 김문규 의원(천안5), 조이환 의원(서천2), 김연응 천안시의원, 김근제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강창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정립을 위해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방여건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마을 소방수혜 불균형 해소와 의용소방대의 업무비중 저하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 대표는 “점차 화재진압 외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마을 자치소방 구현을 위한 주체로서 활동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만큼, 의용소방대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연구모임 활동 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견학지를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의용소방대는 367개대 899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원 등 3만1101회 24만1774명이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유효상 기자

2. 관련 규정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0-11-10 훈령 제 29호
(전부개정) 2009-04-30 의회훈령 제 37호
(일부개정) 2009-07-28 의회훈령 제 38호
(일부개정) 2009-11-05 의회훈령 제 39호
(일부개정) 2011-01-18 의회훈령 제 42호 충청남도의회 사무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1-03-16 의회훈령 제 43호
(일부개정) 2013-04-10 의회훈령 제 44호
(일부개정) 2014-06-20 의회훈령 제 47호
(일부개정) 2016-09-12 의회훈령 제 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충청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 중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03.16>

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03.16, 2013.4.1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충청남도지사가 설립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3.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하고, 의원이 아닌회원 중 1인을 간사로 하되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 제12조제1항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 및 제12조제2항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6.9.12>

③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기간 내에 2개 연구모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1.03.16>

④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⑤ 연구모임은 등록취소가 되지 않는 한 당해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

제4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 보고서에 등록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모임의 등록을 할 수 없음을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1.03.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하며, 제3항에 의해 대표의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모임등록서를 변경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③ 의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등록연구모임"이라 한다) 대표는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 또는 대표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9. 12>

④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개정 2011.01.18>

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모임을 등록할 수 없다.<신설 2014.6.20 >

1. 연구주제·목적이 달성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주제·목적이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도정발전에 배치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이 미비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1.3.16>

제6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 9. 12>

④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배분·회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모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07.28>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연구모임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차 연구모임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모임당 연간 500만원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성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연구모임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등과 그 밖의 경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과 그 밖의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07.28>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8조제3항의 지원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한 때

2. 연구활동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4.10.>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연구모임은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에 대한 자문경비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충청남도 일반회계를 따른다.

⑥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기간 동안 자료정리와 의정활동비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연구모임 등록 당시의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9.07.28, 2011.03.16>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 등) ①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에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기간은 의장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통지한 날부터 시작되며, 당해 연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1.05, 2014.6.20>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제12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조 제목 개정 2013.4.10.>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31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12>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07.28, 개정 2013.4.1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3.4.10.>

제13조(연구모임 등록의 취소) ① 의장은 등록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과제 및 연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활동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11.03.16>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의회훈령 제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훈령 제38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심의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의회훈령 제39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심의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충청남도의회 규정 제42호, 2011.01.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12호 시행일부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의회자료실운영규정” 을 “충청남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중 “법제자료담당관” 을 “입법정책담당관” 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법제자료담당관” 을 “입법정책담당관” 으로 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3호, 2011.03.1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4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47호, 2014.6.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충청남도의회 훈령 제50호, 2016. 9.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